

# “광주, 세계적 디지털 문화허브 조성...창의생태계 구축 노력”

김허경 G.MAP 신임 센터장  
“미디어아트 창·제작 지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예술·기술 결합 전시 계획”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창작된 예술을 미디어아트라 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한편 동시대 예술의 지평을 열어가는 역동적인 분야가 미디어아트다.

광주는 지난 2014년 12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미디어아트와 창의성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으로 삼아 문화산업의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맵), 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광주의 미디어아트 정책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G.MAP 센터장에 김허경 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김 센터장은 “문화 주도 성장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광주는 ‘인권의 빛’, ‘의향정신’, ‘예향의 전통’과 같은 도시의 고유한 인문 자원을 미디어아트와 접목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미디어아트 창·제작 지원 및 창의벨트 운영·관리를 비롯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 예술과 기술 결합의 미디어아트 전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맵은 디지털아트 컬처랩운영,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포럼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벨트 연계 활성화 외에도 실험성을 갖춘 신진 작가군 양성, 시민 중심 미디어 창작 워크숍 등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김 센터장은 전남대 예술대학 1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한국규레이터협회 회원 및 미술평론가로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운영 책임연구원으로



◀김허경 센터장이 지난 2022년 G.MAP개관 이후 펼쳐졌던 기획전, 특별전 관련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로 참여하며 미디어아트와 도시를 접목하는 데 힘을 보탰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10주년 아카이브전 ‘헤테로포니: 10주년의 연주’ 연구 게스트큐레이터로 활동했다.

그는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미디어아트와 창의성 융합을 통해 세계적 인 디지털 문화허브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지속가능한 창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G.MAP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특별 전시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국내외 교류를 통해 미디어아트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 전시는 동시대 메시지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아트센터 나비와 기관 교류전’ (7월 오픈), ‘국내외 예술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아트 초청 특별기획전’ (9월~11월) 등이 그것이다.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기술 윤리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내는 전시”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다는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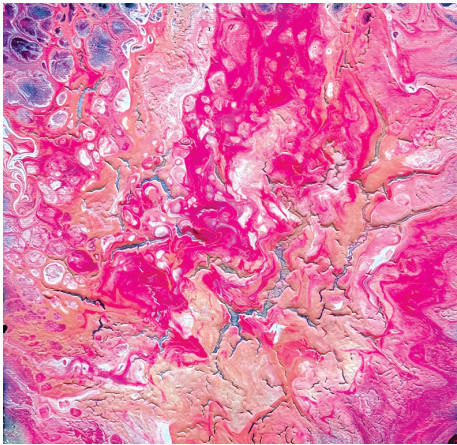
안이다.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G.MAP의 중요한 사업이다. 김 센터장은 “시민과 학생 등 미디어 아트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코딩, 3D 모델링, 영상 제작, 인터랙티브 아트 등 실질적인 창작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체험형 미디어아트 공간’을 구축해 운영 방안을 수립, 실행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미디어아트를 경험하고 창작하며 새로운 문화적 소통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 간 연대, 국제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G.MAP의 역할과 핵심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광주만의 고유한 미디어아트 브랜드 형성, 산학연 협력의 장기 로드맵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예빈 작 'Feelings'



홍유진 작 '바다의 향연'

김예빈·홍유진 ‘心景’ 전  
7월 25일까지 주안미술관

##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모습 ‘마음풍경’

현대인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하루하루 일상에 지친 나머지 우울하고 어둡다. 어쩌면 자신의 내면 풍경을 차분히 바라보는 일조차 힘들다. 틈나바퀴 맞물리듯 돌아가는 현실에서 잠시 쉼을 내 마음을 대면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안미술관(7월 25일까지)에서 ‘마음풍경: 心景’을 주제로 진행 중인 전시는 잊고 있었던,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모습을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김예빈·홍유진 작가는 그림이라는 창을 통해 내면의 다채로운 감정의 결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두 작가의 마음의 풍경을 매개로 더러는 공감하기도, 더러는 자신의 내면 풍경을 가늠할 수도 있다.

‘마음’과 ‘풍경’ 사이에는 상상의 공간이 있다. 그곳에서는 수시로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이라는 감정의 물결이 일렁인다. 물론 잠잠한 수면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풍경이 지속될 수도 있다.

김예빈 작가의 마음 풍경은 도파민, 감정 등을 모티브로 구현했다. 감정이 어떻게 생성

되고 변화하는지 주목한다. 작가는 도파민의 흐름을 감정과 연계해 내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형상화했다.

감정과 도파민을 연계한 작품들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추상적이다. 형이상학적인 작품들은 우리들의 내면이 복잡다단하며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임을 보여준다.

홍유진 작가는 삶의 순간에 포착한 감정의 온도를 작품에 투영했다. 작가가 주시한 풍경이나 바라보는 이의 내면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다소 화사하면서도 밝은 기운은 작가가 바라보는 찰나적 시간이 그만큼 밝은 면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가는 바다의 운술에서 영감을 얻어 움직이는 형상을 감정에 이입해 표현했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지’ 자문하게 한다.

한편 김소현 학예사는 “장마철 무더위가 맞물리는 지점에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내면의 풍경을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다채로운 감정과 감성의 언어를 회화적으로 구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중음악콘서트’서 후텁지근 더위 썩~

광주문화재단, 7월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할 흥겨운 대중음악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 대중음악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트로트와 발라드를 중심으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대중음악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부터 신나는 댄스트로트, 서정적인 발라드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속행, 김양, 김산옥, 하태하, 하유비 등 방송

과 음반 활동을 통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90분 동안 이어지는 무대는 흥과 감동이 교차하는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티켓을 수령한 선착순 2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빛고을시민문화관·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대중음악을 통해



속행

김양

김산옥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공연장을 기반으로 한 문화생태계 조성과 시민 중심의 문화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석 5만원(만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등 50% 할인),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고도화’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亞문화중심도시’ 이슈포럼 성료

이재명 정부의 광주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특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이하 지원포럼)은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주제로 이슈포럼을 열었다.

이상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이슈포럼은 신신하 시 문화정책관, 백창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추진단장은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을 주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K-문화콘텐츠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 등을 언급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정부와 광주시, 시민이 협력해 문화의 힘으로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신하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토론자로 나서 광주 문화분야 공공과제와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신 정책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와 세부 공약사업인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립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사업 전담조직 직제 강화 등이 포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했다.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추진단장은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을 주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K-문화콘텐츠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 등을 언급했다.

백 단장은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은 광주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노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지로 ACC, 광주비엔날레, CGI센터, 실감콘텐츠큐

브, 광주과학기술원 등 인프라와 첨단기술 R&D 환경이 조성된 지역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AI, XR 등 융합형 산업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가 광주라는 사실과도 궤를 같이한다.

황병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고도화 방안, 국립 문화시설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문화 분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특별 유효기간을 기존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사업 국비 지원율을 상향(50%→70%)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가조직 위상 강화 등이 포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가 주도 고도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원포럼 류 회장은 “이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된 내용들이 광주의 문화 분야 공약사업의 국정 과제 반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젠더 브런치 영화제’가 오는 7월 3일·13일 북카페 은새암에서 열린다. 이민화 감독의 영화 ‘백차와 우롱차’의 한 장면. <광주여성영화제 제공>

## 점심시간, 영화로 만나는 젠더 이야기

광주여성가족재단·여성영화제, 7월3일·17일 ‘젠더 브런치 영화제’

햇살 좋은 점심시간, 한 편의 영화가 짧은 휴식과 위로를 전한다. ‘젠더 브런치 영화제’가 올해도 지역민들을 찾아온다.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여성영화제가 공동 주관하는 ‘젠더 브런치 영화제’가 오는 7월 3일과 17일, 광주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 1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화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한다.

특히 여성서사를 그려낸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 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선 1회차는 7월 3일. 청소년동자의 삶과 꿈을 그린 허다희 감독의 영화 ‘침방’이 상영된다. 수영장 청소노동자 세운이 고된 삶에 잊고 있던 꿈과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작품으

로, 관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7일 2회차에서는 이민화 감독의 ‘백차와 우롱차’가 관객을 만난다. 간호사 은재가 한옥 찻집에서 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리는 내용으로, 생과 사가 교차하는 치열한 현장에서 여류를 잃어버린 간호사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 또는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영화제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성평등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북카페 은새암을 지역 시민들의 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가비 무료, 브런치 제공.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